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 간의 관계 :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and Paternal Paren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mmunication
Chung, Mi Ra Kim, Min Jeong Yee, Bang Sil

본 연구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 부부 간 의사소통,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아버지 210명이며 변인측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통계 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고,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 양육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강화하였으며, 이 때 부부 간 의사소통은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있어서 올바른 부부 간 의사소통의 정립의 중요성을 밝히고 아버지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어머니 문지기 역할,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양육행동, 부부 간 의사소통

*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 S1A3A2053282).

** 제 1저자: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가천대학교 세실마을연구원 연구교수

**** 교신저자: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E-mail: bsyee@osan.ac.kr)

I. 서론

시대가 변하면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 역할이 이슈가 되고 있다. 여성 사회진출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가 자녀양육이나 가사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공유하게 된 것이다(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1999). 그러나 무엇보다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낮추고(Amato & Rivera, 1999), 학령기의 학업성취와 관련되며(Jeynes, 2007)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Hong과 Ho(2005)는 장기종단적 연구를 통해 부모 양육참여가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며, 양육참여 중에서도 부모 간 의사소통이 초기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여, 부모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육참여를 통해 아버지 자신의 삶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Allen & Daly, 2007)결과를 볼 때 아버지 양육참여는 가족 내 아버지 역할에 대한 만족과 자녀 양육에서의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를 키울 때 발생하는 일상적인 일에 물리적, 신체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Fagan & Palm, 2004) 하위영역은 가사활동, 여가활동,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으로(최경순, 1993) 또는 발달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주정혜,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는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놀아주기, 목욕시키기, 먹이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Lamb, 2013; Pleck, 1985).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들은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고 있다(김정신, 1999; 안철하, 문혁준, 2012; Lewis & Lamb, 2003; Rinaldi & Howe, 2012). 특히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정원, 장석경, 2010; 이영환, 2008). 즉, 어머니와 다르게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거나 보살피기 보다는 함께 놀아주거나 학습지도와 관련된 양육참여를 더 많이 하며,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양식도 어머니와 달라 자녀의 발달 중 학습성취 및 학습동기, 스트레스 대처능력, 내적 통제능력 등에 영향을 많이 준다(성수현, 1996; 조주은, 2004; 한누리, 문혁준, 2014). 과거에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 존재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주로 관심을 보였으나(한누리, 문혁준, 2014) 최근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상과 참여의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행동특성이거나 태도를 의미하며 자녀에게 하는 모든 언행이나 표정, 태도 등을 포함한다(김영숙, 1989; 허영립, 2006). 일반적으로 양육행동은 양육스타일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면서 온정과 수용, 거부와 제재, 허용과 방임이나 애정과 자율, 거부와 통제 유형 등으로 이해되거나 비애정적, 독재적, 허용적, 거부적 태도로 구분되기도 한다(이원영, 1983; Bigner, 1977; McGinn, Cukor, & Sanderson, 2005).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행동양식을 나타내며 키웠는지가 유아의 사회 및 정서발달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하고 있다(한현아, 2000; Cohen, Cohler, & Weissman, 1984). 이상과 같이 아버지 양육행동은 자녀를 키울 때 나타나는 태도로 양육의 구체적인 내용인 양육참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가운, 신혜

영, 2013). 따라서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아버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양육참여뿐 아니라 아버지 양육행동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변인이나 인성, 성역할개념, 자녀관, 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지선례, 이영환, 2001;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 Fox & Bruce, 2001)과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관계적 변인이 있다(강란혜, 2000; Nangle, Kelley, Fals-Stewart, & Levant,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양육행동은 개인의 직업, 성향,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부모로서 양육만족도가 높은지, 양육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특성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 양육참여는 결국 관계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배우자인 어머니가 아버지 양육행동 및 참여의 내적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버지 양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버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부부간의 관계적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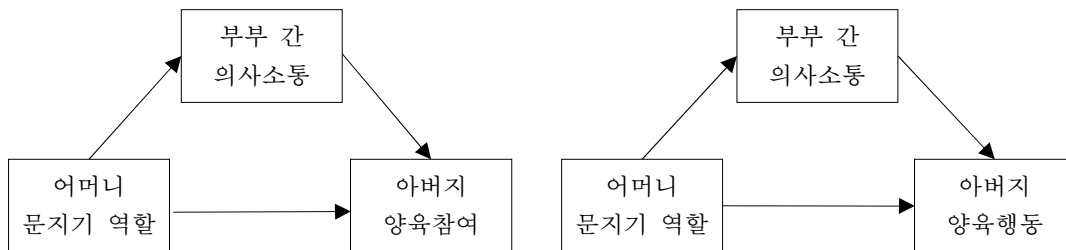
최근 들어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변인으로 어머니 문지기 역할(maternal gatekeeper)이 주목받고 있다.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자녀를 돌볼 때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남편의 양육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양육행동을 감독하고 제어하여 남편이 자녀양육개입을 간섭하는 일련의 신념 및 행동을 의미한다(Allen & Hawkins, 1999; La Rossa, 1997). 최근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Schoppe-Sullivan, Brown, Cannon, Mangelsdorf, & Solowski, 2008; Van Egeren, 2000)은 어머니 문지기 행동이 남편의 양육참여를 약화시키는 측면(closing)도 있으나 지지하는 측면(opening)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높다는 것은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 권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양육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혜영, 이숙현, 1999; 한유진, 김선애, 2007; Fagan & Barnett, 2003; McBride, Brown, Bost, Shin, Vaughn, & Korth, 2005).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보는 선행연구들(이지영, 2008; 조숙인, 2010; 황윤하, 2015; Allen & Hawkins, 1999) 중에서 특히, 이지영(2008)은 아버지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의 관계에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매개효과까지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윤하(2015)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문열기, 문닫기 역할로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보다 다층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자로서 정체감에 영향을 주므로 양육행동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갖는다(McBride et al., 2005). 그러므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부부 간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 결혼갈등, 부모역할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 양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김나영, 2002; 정은주, 이미선, 2013; 황민혜, 고재홍, 2010).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감독 또는 개입하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부부 간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래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부부역할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변인이기 때문에 부부관계 질이나 결혼만족도 등과 마찬가지로 부부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기대된다(정은, 2004; 정은, 이수환, 2007;

Walsh, 1998). 결국,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통해 아버지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데 영향을 주게 되지만, 이 때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아버지 역할은 다시 조정,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로 인해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때 부부 간 의사소통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했을 뿐 부부 간 의사소통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부부 간 의사소통,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공동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부부 간 의사소통,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서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대학 S연구원에서 실시한 부모-영아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17~28개월 사이의 걸음마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버지가 인식하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양육 관련 설문지를 총 215명에게 배포한 후, 설문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을 제외한 21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10)

변인	항목	빈도(명)	백분율(%)
영아 성별	남아	107	51.0
	여아	103	49.0

변인	항목	빈도(명)	백분율(%)
출생 순위	첫째	189	90.0
	둘째 이상	18	8.6
	무응답	3	1.4
연령	30세 미만	4	1.9
	30-34세	77	36.7
	35세 이상	123	58.6
	무응답	6	2.9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9	4.3
	대졸	164	78.1
	대학원 이상	33	15.7
	무응답	4	1.9
월 소득	300만원 미만	43	20.5
	300~500만원	89	42.4
	500만원 이상	72	34.3
	무응답	6	2.9

연구대상 아버지의 자녀 성별은 근소한 차이로 남아가 107명(51.0%), 출생순위는 첫째가 189명(90.0%)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35세 이상이 123명(58.6%)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35세($SD=3.57$)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164명(78.1%), 가구 월 소득은 300~500만원 미만이 89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 문지기 역할

아버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Fagan과 Barnett(2003)이 개발한 ‘Maternal Gate-keeping Scale’ 을 이지영(2008)이 남편이 응답하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로 변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으로 ‘만약 아이에게 훈육이 필요하다면 내 아내는 나보다는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아이의 감정이 상해 있다면 내 아내는 내가 아니라 본인이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와 같이 발달지원 및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지각하는 부인의 문지기 역할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7이다.

2) 부부 간 의사소통

부부 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정현숙(2001)의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중에서 부부의 교류적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16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부 간 교류적 과정은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부부 간 의사소통이 많고 배우자 말에 경청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과 배우자에게 차가운 소리나 잔소리 등으로 상호작용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며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1이며 부정적인 의사

소통은 .87이다.

3)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Fagan과 Palm(2004)이 개발한 ‘Father Involvement Activities’를 주정혜(2012)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한다. 양육참여 유형은 발달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으로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발달지원은 함께 놀이하거나 이야기 들어주기,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거나 어린이집 활동에 관심 갖기 등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양육지원은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돌보기, 음식을 해주거나 잠 재우기 등의 아이 돌보기에 대한 것이며, 생활지원은 여가시간을 자녀와 보내기, 함께 놀이터를 가거나 목욕하기 등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발달지원은 .80, 양육지원은 .74, 생활지원은 .76이다.

4)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가 제작한 양육행동 척도를 김문정(2003)이 수정한 것을 최은지(2011)가 재요인분석하여 문항 수를 30개로 축소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 4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걸음마기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6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사용하였다. 양육행동 유형은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온정·수용(7문항), 허용·방임(9문항), 거부·제재(9문항)의 행동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에게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의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온정·수용은 .76, 허용·방임은 .74, 거부·제재는 .82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S 부모-영아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걸음마기 자녀를 둔 아버지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놀이 프로그램이 설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에 아버지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설문지 응답에는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양육참여, 양육행동,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에 대한 인식, 부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 문지기 역할, 부부 간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결혼하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부부 간 의사소통, 양육참여,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및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부부 간 의사소통 중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r = -.199,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부정적 의사소통($r = .275,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인 발달지원($r = -.136, p < .05$), 양육지원($r = -.178, p < .01$), 생활지원($r = -.162, p < .05$) 모두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온정·수용과 거부·제재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허용·방임($r = .164, p < .05$)만이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어머니 문지기 역할, 부부 간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 간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N=210)

	어머니 문지기 역할	부부 간 의사소통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양육행동		
		효율적 의사소통	부정적 의사소통	발달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
어머니 문지기 역할	1								
효율적 의사소통	-.199**	1							
부정적 의사소통	.275**	-.527**	1						
발달지원	-.136*	.392**	-.161*	1					
양육지원	-.178**	.277**	-.030	.655**	1				
생활지원	-.162*	.417**	-.123	.690**	.620**	1			
온정·수용	-.090	.354**	-.196**	.550**	.328**	.587**	1		
허용·방임	.164*	-.227**	.244**	-.116	-.073	-.105	-.163*	1	
거부·제재	.083	-.163*	.207**	-.174*	.044	-.134	-.433*	.337**	1
M(SD)	2.27 (.52)	2.99 (.43)	2.13 (.61)	2.73 (.43)	2.74 (.43)	3.08 (.40)	3.13 (.36)	2.01 (.35)	1.57 (.39)

* $p < .05$, ** $p < .01$

2.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 간 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urbin-Watson 통계치 범위=1.81-2.04, VIF=1.08).

1)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부부 간 의사소통 중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서만 나타났고 부정적 의사소통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각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매개로 양육참여 중 발달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고($\beta = -.199, p < .01$) 2단계에서 발달지원에 대해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6, p < .05$).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발달지원에 대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6, p < .05 \rightarrow \beta = -.061, p > .05$).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완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627, p < .01$). 즉, 결음마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지각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발달지원에 대해 아내와의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은 완전 매개역할을 하여,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아내와의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아내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방식은 자녀의 발달지원을 위한 양육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지각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매개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양육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9, p < .01$). 2단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지원에 대해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beta = -.178, p < .05$), 3단계에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의 양육지원에 대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8, p < .05 \rightarrow \beta = -.128, p > .05$).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완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Z = -2.312, p < .05$), 아버지가 지각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아내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양육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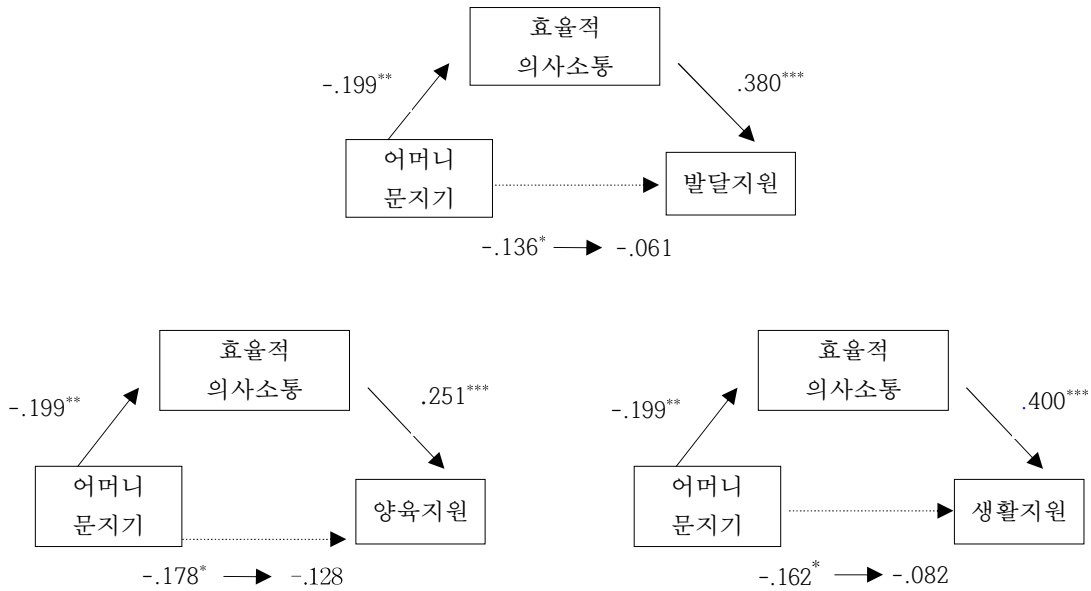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생활지원에 대해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1단계에서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대해($\beta = -.199, p < .01$), 2단계에서 아버지의 생활지원에 대해($\beta = -.162, p < .05$)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과 생활지원을 함께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생활지원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2, p < .05 \rightarrow \beta = -.082, p > .05$).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부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이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생활지원에 대한 양육참여에 대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Z = -2.661, p < .01$). 즉 아버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아내와의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며 아내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생활지원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 부부 간 의사소통의 영향

종속변인	매개변인	분석단계	β	F	R ²	
발달지원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1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효율적 의사소통	-.199**	8.619**	.040	
		2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발달지원	-.136*	3.942*	.019	
		3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 효율적 의사소통	-.061 .380***	19.269***	.157	
	양육지원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1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효율적 의사소통	-.199**	8.619**	.040
			2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양육지원	-.178*	6.822*	.032
			3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 효율적 의사소통	-.128 .251***	10.532***	.092
생활지원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1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효율적 의사소통	-.199**	8.619**	.040	
		2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생활지원	-.162*	5.601*	.026	
		3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 효율적 의사소통	-.082 .400***	22.752***	.18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2)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 간 의사소통 매개효과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부부 간 의사소통 매개효과는 허용-방임 양육행동에서만 나타났고 온정-수용과 거부-제재 양육행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각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1단계에서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대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199, p < .01$), 2단계에서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64, p < .05$). 3단계에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함께 투입했을 때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해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4, p < .05 \rightarrow \beta = .124, p > .05$).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은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Z=2.083, p < .05$). 즉 아버지가 지각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아내와의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아내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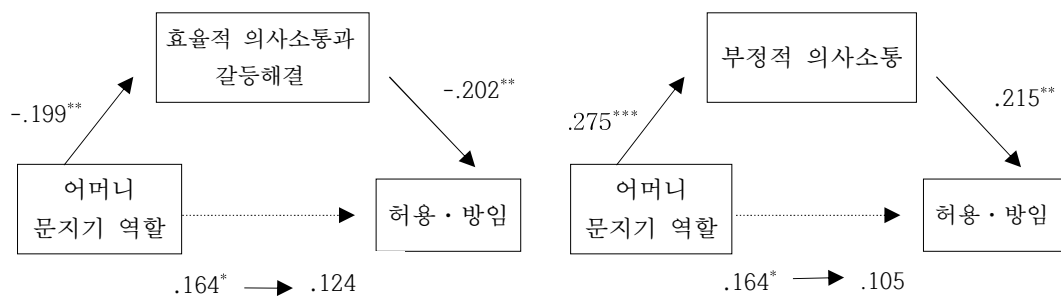
아버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해 부부 간 부정적 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1단계에서 부부 간 부정적 의사소통에 대해($\beta = .275, p < .001$), 2단계에서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해($\beta = .164, p < .05$) 정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부부 간 부정적 의사소통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의 영향력은 상실되었다($\beta = .164, p < .05 \rightarrow \beta = .105, p > .05$).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부 간 부정적 의사소통은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Z=2.480, p<.05$). 즉 아버지가 가지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인식은 아내와의 부정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아내와의 부정적 의사소통은 걸음마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 부부 간 의사소통의 영향

종속변인	매개변인	분석단계	β	F	R ²
허용 방임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1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효율적 의사소통	-.199**	8.619**	.040
		2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허용·방임	.164*	5.752*	.027
		3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 효율적 의사소통	.124 -.202**	7.334**	.066
	부부 간 부정적 의사소통	1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부정적 의사소통	.275***	16.983***	.075
		2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허용·방임	.164*	5.752*	.027
		3단계 어머니 문지기 역할 부정적 의사소통	.105 .215**	7.757**	.070

* $p<.05$, ** $p<.01$, *** $p<.001$



[그림 3]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부부 간 의사소통 매개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에 있어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부부 간 의사소통의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가 문지기 역할을 많이 할수록 아버지 양육참여를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어머니가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최근 연구 결과(McBride et al., 2005)와 유사하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통솔자로 결정권을 갖는 경향이 있었으나(하상희, 이정우, 1996) 현대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오히려 어머니가 주도권과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과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McGraw(2000)는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참여정도에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영향력은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여전히 지속된다(Madden-Derdich & Leonard, 2000)고 하였다. 또한 Fagan과 Barnett(2003)도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결정짓는 인과적 요소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양육참여 간 인과적 관계에서 부부 간 의사소통은 문지기 역할의 부정적 영향을 낮추고 아버지 양육참여를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이 밝혀졌다. 이는 Parke(2000)가 아버지 양육참여 요인이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접근성과 같은 관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 속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Allan과 Hawkins(1999)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엄격한 기준, 외부에서의 타당성, 가족의 역할 구분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의 역할 구분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은 부부가 가정과 자녀를 위해 협동적, 협력적으로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어머니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가족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의 양육참여를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협동과 협력의 과정을 거친다면 보다 효과적인 역할 구분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저해하는 다소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가정마다 높고 낮음은 다르지만, 21%의 미국 맞벌이부부에서 나타나고 있다(Allan & Hawkins, 1999).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협력적이고 협동적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역할이 명확할수록 가족 관계가 보다 순기능적이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특히 출산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명확하던 가족 구성원의 역할기대가 변화하게 되므로 상호작용과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Madden-Derdich & Leonard, 2000).

이상과 같이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도 갖지만,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부모정체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McBride et al., 2005) 근원적인 양육참여 정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Schoppe, McBride, & Ho, 2004)에 대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일부 하위변인에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발달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과 관련된 양육참여에 영향을 줄 때 부부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 양육 전반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식할 때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돌봐주는 발달지원이나 양육지원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지만, 부부 간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듣는 대화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역할 지각이 선행되고 이후 현실적인 양육참여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허영림, 2006)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양육은 역할인식과 실제 양육참여 두 가

지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부모 역할인식 단계에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역할 지각을 낮추어 아버지 양육참여를 저해하게 되었다면, 실제 양육실천 단계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 부부의 경우,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양육행동의 방향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의 자녀 발달, 양육지원에 대한 참여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부부 간 의사소통 방식이 효율적일 때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완전히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때 부부 간 부정적 의사소통이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자녀 양육 시 부부간의 부정적 의사소통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부부가 서로에게 차가운 태도로 이야기하거나 불만과 잔소리하는 것은 아버지 양육참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버지 양육참여를 돕기 위해 많은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지만,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McBride & Lutz, 2004).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돕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해 모든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인식이 전환되고 부부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 간 의사소통 방식이 긍정적인 대화 형태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을 계획할 경우 구체적인 양육기술이나 방법 이외에도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에서도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부부 간 의사소통 매개효과가 허용·방임 양육행동에서만 나타났다. 즉,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 허용적, 방임적 양육행동을 강화하였으며, 이 때 부부 간 의사소통은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의 의사소통은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감소시키지만, 부정적 의사소통은 오히려 이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스스로가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아버지는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부 간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을 감소시킬 수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온정-애정적 양육행동이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부부 간 의사소통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이들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황기아와 홍보선(1996)은 가족구성원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우자 한쪽의 독단적 결정일 경우 목표달성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고 하여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 양육에서도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갖는 독단성이 조화로운 자녀 양육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바탕으로 한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에 있어서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은 일관된 양육 가치관의 정립으로 이어져 아버지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이 훈육이나 놀이와 관련한 결정과정에서 아버지의 의견이나 권한이 배제되고 어머니의 허락을 구해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발달에 유익한 아버

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 일관성 있는 양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아버지 양육행동에 있어서도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허용적, 방임적 양육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cBride 등(2005)이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 스스로가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과 실제 자녀와 가까워지는 정도를 조절하게 된다는 주장과도 연계된다. 따라서 양육에 있어서 자신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허용하고 방임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 인식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밝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부 간의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며, 다음으로 어머니의 역할 인식 전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부 간 양육 책임을 함께 분담한다는 의미와 함께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Carr와 Springer(2010)는 자녀의 사회, 정서, 신체 건강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물론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올바른 부부 간 의사소통의 정립이 중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시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걸음마기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영아기 초기의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시작과 함께 아버지 양육참여 양상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양육참여를 저해하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출산 후 양육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초기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어머니의 내적 특성에서만 기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 변인을 밝히고 변인 간의 상호 관계적 양상을 살펴보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조사했지만 추후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문지기 역할을 함께 조사하여 연구하여 상호 관점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관혜 (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김가운, 신혜영 (2013).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탐색.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191-213.
- 김광웅, 이인수 (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나영 (2002). 장애유아 어머니의 의사소통 불안의식,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 생활만족도의 관계 분석. **발달장애연구**, 6(1), 165-174.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숙 (198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전주여자전문대학교 논문집**, 13, 297-320.
-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정신 (1999).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원, 장석경 (201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자녀가 인식한 아버지양육참여에 대한 이미지.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연구**, 14(3), 29-48.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혜영 (1999). 남성의 일 - 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57-280.
- 성수현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아동교육**, 5(2), 54-72.
- 안설하, 문혁준 (2012).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89-103.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환 (2001).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발달적 결과. **아동학회지**, 22(2), 65-76.
- 이영환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모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동과권리**, 12(2), 189-210.
-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 노릇: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 이지영 (2008).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자녀 양육참여: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 (2004). 도시 기혼여성의 부부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2(2), 173-199.
- 정은, 이수한 (2007).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부부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충북지역 C 군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6(1), 243-272.
- 정은주, 이미선 (2013).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어려움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부부의 사소통과 부모역할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8(4), 585-510.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 조숙인 (2010). 어머니의 취업 및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주은 (2004).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정혜 (2012). 아버지 양육참여와 만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선례, 이영환(2001). 유아에 대한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4(1), 11-25.

- 최경순 (199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2), 115-135.
- 최은지 (2011).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상희, 이정우 (1996).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참여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11(1), 23-46.
- 한누리, 문혁준 (2014). 유아의 문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9(3), 25-49.
- 한유진, 김선애 (2007).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37-46.
- 한현아 (2000). 아버지의 놀이참여행태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 수준.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영립 (200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1), 97-116.
- 황기아, 홍보선 (1996).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 및 의사결정유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련연구.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4, 41-65.
- 황민혜, 고재홍 (2010). 부부간 결혼가치관 차이, 오해 및 부부갈등: 의사소통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79-800.
- 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 황윤하 (2015).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양육 효능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len, S. M., & Daly, K. J. (2007). *Th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 updated research summary of the evidence*. Ontario: Centre for Families, Work & Well-Being, University of Guelph.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99-212.
- Amato, P. R., & Rivera, F. (1999).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75-38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igner, J. J. (1977). Attitudes To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2), 98-106.
- Carr, D., & Springer, K. (2010). Advances in families and health research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743-781.
- Cohen, R. S., Cohler, B. J., & Weissman, S. (1984). *Parenthood: A psychodynamic perspective*. NY: Guilford Publications.
- Fagan, J., & Barnett, 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paternal

- competence, mothers' attitudes about the father role, and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8), 1020-1043.
- Fagan, J., & Palm, G. (2004). *Fathers and early childhood programs*. NY: Delmar Learning.
- Fox, G. L., & Bruce, C. (2001). Conditional fatherhood: Identity theory and parental investment theory as alternative sources of explanation of father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394-403.
- Hong, S. H., & Ho, Hsiu-Zu. (2005).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student achievement: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ing across ethnic group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1), 32-42.
- Jeynes, W.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and urban secondary school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Urban Education*, 42(1), 82-110.
- Lamb, M. E. (2013). *The father's role: Cross cultural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LaRossa, R. (1997). *The modernization of fatherhood: A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wis, C., & Lamb, M. E. (2003). Fathers'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The evidence from two-parent famil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8(2), 211-228.
- Madden-Derdich, D. A., & Leonard, S. A. (2000). Parental role identity and fathers' involvement in coparental interaction after divorce: Fathers' perspectives. *Family Relations*, 49(3), 311-318.
- McGinn, L. K., Cukor, D., & Sanderson, W. C.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cognitive style, and anxiety and depression: Does increased early adversity influence symptom severity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sty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2), 219-242.
- McBride, B. A., Brown, G. L., Bost, K. K., Shin, N., Vaughn, B., & Korth, B. (2005). Paternal identity, maternal gatekeeping and father involvement. *Family Relations*, 54(3), 360-372.
- McBride, B. A., & Lutz, M. M. (2004). Intervention: Changing the nature and extent of father involvement.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4th ed., pp. 446-475). NY: Wiley.
- Nangle, S. M., Kelley, M. L., Fals-Stewart, W., & Levant, R. F. (2003). Work and family variables as related to paternal engagement, responsibility, and accessibility in dual-earner couples with young children.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1(1), 71-90.
- Rinaldi, C. M., & Howe, N.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 Roopnarine, J. L., Brown, J., Snell-White, P., Riegraf, N. B., Crossley, D., Hossain, Z., & Webb, W. (1995).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and household work in common-law dual-earner and single-earner Jamaican famili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6(1), 35-52.
- Parke, R. D. (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43-58.

- Pleck, J. H. (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CA: Sage.
- Schoppe,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 (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 Schoppe, S. J., McBride, B. A., & Ho, M. (2004). Unidimensional versus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on father involvement. *Fathering, 2*(2), 147-163.
- Van Egeren, L. A. (2000). The parental regulation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Guilford Pres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of marital communication with spouse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and paternal parenting involvement. The participants were 210 fathers and their toddler children. The survey was rated by the fath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ediating effect was tested by Baron & Kenny's(1986) four step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ternal gatekeeping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aternal parenting involvement. Second, the maternal gatekeeping consolidated the paternal permissiveness and non interventional child rear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ly complete. The marital communication was key factor can help to increase paternal involvement and lead to paternal positive parenting behavior. The discussion included the suggestion for encouraging the paternal involvement and positive child rearing behavior.

▶*Key Words* : *maternal gatekeeping, paternal parenting involvement, marital communication*

논문투고 2015. 02. 15.
수정원고접수 2015. 04. 07.
최종게재결정 2015. 04. 09.